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4월 대선 후보 4명…과도정부 임시대통령도 출마**



아프리카 가봉의 4월 대통령 선거 후보가 4명으로 확정됐다고 현지 일간지 루니옹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브리스 올리귀 응게마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대선 출마를 승인했다.

2023년 8월 쿠데타로 집권한 응게마 임시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는 알리 봉고 온덤바 전 대통령 시절 마지막 총리였던 알랭 클로드 빌리 바이 은제가 꼽힌다. 변호사이자 세무 조사관인 조 아펜세 에싱고네, 의사 출신 스테판 제르맹 일로코 부센귀도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는 “출마 신청자 23명 중 19명은 실격 처리됐다”며 “이들은 72시간 안에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달 12일 대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결선투표일은 미정이다.

가봉에서 지난 2023년 8월 26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42년간 장기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가 2009년 사망하면서 집권한 알리 봉고 온덤바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였다. 30일 봉고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발표 직후 그의 사촌 동생인 응게마 당시 공화국 수비대 사령관은 선거 조작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응게마는 같은 해 9월 4일 과도정부 임시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한 아버지 오마르에 이어 14년간 가봉을 통치한 봉고 전 대통령까지 봉고 부자의 56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 구성원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없도록 한 개헌안이 국민투표 91.8%의 찬성으로 통과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이사야 16:5)

하나님, 오랜 독재가 끝나고 과도정부를 지나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시기에 이룬 가봉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때 부정과 폭력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야망이 아닌 국민의 평안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직하고 헌신적인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가봉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봉에 이루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헝가리,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동성애 행진 금지

헝가리 의회는 지난 18일 ‘아동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동성애를 홍보하는 거리 행진인 ‘프라이드’ 행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아동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드’ 행사도 거리에서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것이다. 정부 대변인 졸탄 코바치는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공개적인 동성애 표현은 이제 아동 보호 문제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으로 징수되고 수익금은 아동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의 보호와 잠재적인 유혹을 우려하는 가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오르반 정부는 LGBT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안전 조치 외에도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경제 개혁을 도입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열왕기하 18:3,6)

하나님, 아동보호법을 근거로 한 개정법을 통해 사랑하는 다음세대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헝가리 의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복음에 반역하는 거친 세속의 물결 속에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나라가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헝가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늘어나는 이 땅의 젊은 세대가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 경건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 스리랑카, 지방선거 실시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사태로 연기됐던 지방선거를 오는 5월 실시한다고 연합뉴스가 21일 AF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 지방선거 개최를 발표하며, 선거는 전국 336개 기초단체의 약 1,730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지방선거는 애초 지난 2023년 3월 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가 경제 위기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연기했다. 이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라닐 위크레메싱게 당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를 연기했다며 선관위에 가능한 한 빨리 지방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사태와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가 무너져 2022년 4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2023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9억 달러(약 4조 2,500억 원) 규모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에스겔 45:10,22)

하나님, 국가부도 사태로 연기되었던 지방선거를 오는 5월에 실시한다는 스리랑카 소식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붙드신 주님께 이 나라의 선거 과정을 모두 의탁드립니다. 주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을 세워주시며,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공정한 저울로 이 땅을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또한 불교 신자가 많은 이 땅이 복음의 부재로 인해 영적 부도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스리랑카 교회를 통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사 주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하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미비아 유목민, 성경을 노래로 전하다



나미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오푸오(Opuwo) 마을. 현지 언어 담바(Dhimba)에서 ‘길의 끝’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히음바(Himba)족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곳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푸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2017년, 지역의 한 목사는 하나님이 히음바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주셨다고 느꼈다. 당시 담바어로 된 성경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나미비아 성서공회, 위클리프(Wycliffe),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가 협력하여 히음바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한 유명한 이야기꾼과 협력한 끝에 35개의 성경 이야기와 복음 찬양이 만들어졌고, 이는 메가보이스(MegaVoice) 오디오 기기에 담겨 배포되었다.

메가보이스의 마이클 카디(Michael Cardy)는 한 목사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이 오디오 성경을 들려준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아이들의 언어로 흘러나오자, 아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차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한 나무 주변에 돌을 놓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듣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변화에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다섯 개의 마을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기가 다가오자 공동체는 보다 안정적인 예배 공간을 찾았고, 사마리안퍼스가 돌로 지은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교회는 성경이 전파되는 중심지가 되었다.

이제, 그 목사는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히음바족의 유목 생활 방식 덕분이다. 매년 봄, 가족과 아이들은 풀을 찾아 떠나는데, 태양광 오디오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

밤이면 마을 주민들이 조상 숭배 이야기를 나누던 대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히음바족은 구전 문화를 지니고 있어 성경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마을로 기기를 전달하며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보급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역 교회들은 평신도 지도자 양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카디는 “넓게 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5만 명에 달하는 히음바족에게 오디오 성경은 매우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히음바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메가보이스의 사역도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카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칼라하리 사막 어딘가의 작은 마을에서도 히음바어로 복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여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출처: Mission Network News, 기도24:365본부 종합).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 나미비아의 유목민 히음바족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상 숭배에 속아 멸망의 길의 끝에 서 있던 이들을 기억하셔서 성경과 찬양으로 어두운 마음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 주신 것과 같이 이 구원의 기쁨이 모든 종족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를 믿는 자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려 이들이 머무는 모든 땅에 예수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증인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 중국, 17세 소녀가 50세 남성 대리모로 쌍둥이 출산 논란

중국에서 미성년자인 17세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은 SNS를 통해 이 일을 폭로했다. 그는 소녀가 시험관 시술을 받은 것은 겨우 16세에 불과했다며 대리모 문제가 점차 미성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녀는 중국 소수민족인 이족 출신으로, 이족 여성들이 대리모 산업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대리모 중개업체는 1인당 18만-20만 위안(약 4,000만 원), 쌍둥이는 20만-24만 위안(약 5,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법 대리모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지만, 난임 등으로 수요가 많아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 이번 폭로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으나 검열된 듯 곧 삭제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대리모는 인신매매이자 장기매매다”라면서 비판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시편 40:17)

하나님, 중국에서 17세의 어린 소녀가 50세 남성의 대리모로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한 생명을 마치 물건과 같이 거래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악행과 탐심 가득한 심령을 꾸짖어 주소서.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과 무지함으로 인해 이러한 범죄에 악용되는 소수민족 여성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초대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때와 같이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 미얀마 규모 7.7 강진…태국-중국까지 피해 확산

28일 미얀마에서 12시 50분께(현지시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진앙은 수도 네피도에서 248km,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33km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다. 첫 지진 발생 12분 후 규모 6.4의 여진이 이어졌다. 미얀마 내 피해 상황은 내전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수도 네피도에서는 사원이 파손되고 주택 일부가 무너졌다. 의료 및 구조 체계가 취약한 만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진원에서 약 1천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도 지진 피해가 속출했다. 건설 중이던 30층짜리 고층 건물이 붕괴해 최소 43명이 매몰됐으며, 시민들은 강한 진동에 거리로 대피했다. 방콕 권역에는 1천700만 명이 거주하며,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 인접국인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감지됐다. 윈난성 루이리시에서는 건물 파손과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지진 당국이 밝혔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시편 43:3)

하나님,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이 태국과 중국까지 미쳐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을 주께 고하며 속히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조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내전의 아픔 속에서 지진까지 겹쳐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미얀마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터가 무너진 모든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을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미얀마뿐 아니라 태국과 중국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군부, 종교적 소수자 탄압 지속...국제사회 관심 절실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쿠데타 이후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크리스천컨설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청문회 개최 연설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인 메이크 솔로베이치크(Meir Soloveichik)은 “지난 4년 동안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불교 다수 국가로, 정부는 오랫동안 불교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군부가 정부를 전복하고 국가행정평의회(SAC)를 구성한 이후,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공습, 살해, 체포 등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자유로운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다. 부위원장은 “미얀마 군부는 2024년 1월 7일 사가잉 지역에서 공습을 감행해 가난(Kanan) 마을의 성 베드로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17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9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기독교 지도자인 티안 리안 상(Thian Lian Sang) 목사는 2021년 9월 체포된 후 현재까지 억류돼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침례교 목사로서의 ‘지도자 역할’ 때문에 체포됐으며, 2022년 12월 2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인권 단체인 친인권협회(Chin Human Rights Association)의 사무총장 사라이 자 우크 링(Salai Za Uk Ling)은 청문회에서 “4년 전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특히 친 주의 기독교인을 겨냥한 조직적인 종교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탄압에는 교회 파괴, 목회자의 불법 살해 및 강제 실종, 종교 지도자 체포, 자유로운 예배와 집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이사야 61:1-2)

하나님,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며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행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꾸짖어 주십시오. 주여, 사랑하는 미얀마교회를 더욱 주께 의탁하오니, 여호와와 영이 함께하사 처음 주님과 깊은 사귄이 있었던 십자가 복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셔서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마음이 상하고 찢긴 심령이 위로를 받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볼리비아, 폭우로 90개 도시 재난지역 선포

볼리비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한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시가 90개로 증가했다고 정부의 후안 카를로스 칼비몬테스 민방위부 차관이 발표했다고 25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칼비몬테스 차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19개 도시가 추가돼 90개 도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족은 36만 8,707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당국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서부의 라파스이며 두 번째로 심한 피해지역인 중부의 코차밤바에서는 18명이 사망했다. 심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건물과 기반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50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린도 후서 1:3-4)

하나님, 볼리비아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폭우로 인해 재난지역이 90개 도시로 증가해 피해자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소식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실종자들과 위험에 처한 자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께 수재민과 유가족들을 의탁하오니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사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간구하며 섬기는 몸 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볼리비아 되게 하소서.

▲ 한신대 신대원 수련회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서 낭독 논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지난 17-20일 진행한 ‘2025년 신학대학원 신앙수련회’에서 ‘성적지향, 성 정체성’ 차별금지를 적시한 문서를 낭독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기독교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수련회 주최 측은 작년 기장 제108회 총회에서 통과된 제7문서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밝혔으나, 제108회 총회는 해당 용어들을 삭제하고 통과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대책위원회(동반위)는 수련회 주최 측이 이를 무시하고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며 “거짓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련회에서는 신대원 부학생회장이 강단에서 ‘평등문화약속문’을 신대원생들과 함께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반위는 강의 도중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탄핵정국에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위한 방을 향린교회 내에 마련했다며 성소수자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기장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로 전락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수련회를 기획한 자는 기장 헌법에 어긋난 행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4:7-8)

하나님, 성차별 금지를 적시한 문서를 낭독하고, 동성애 활동을 지지하는 강의를 하는 등 성경에 반하는 일이 신학대학원 신앙수련회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 수련회가 오히려 학생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한국교회를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경외함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살게 하소서.